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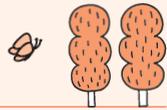
초등 술술 글쓰기 가이드북

오현선 지음



〈술술 글쓰기 마법책 ①-③〉을 지도하실 때는 물론
초등 글쓰기를 지도하는 모든 상황에 참고할 수 있습니다.

차례



- ① 쓰기 전에 말하기부터 해요 2
- ② 글쓰기 성장 3단계 5
- ③ 글쓰기 첫 습관을 잘 들이는 4가지 9
- ④ 일기 쓰기, 매일 즐겁게 하는 법 12
- ⑤ 독후감 쓰기 전쟁, 끝내 볼까요? 16
- ⑥ 어린이글 속의 어린이와 소통하는 법 18
- ⑦ 맞춤법 교정하기 20
- ⑧ 글쓰기, 결국 독서에서 시작합니다 22

1 쓰기 전에 말하기부터 해요

어린이와 글쓰기를 하면서 양육자분들과 상담을 많이 하는데요, 양육자분들이 꺼내 놓으시는 글쓰기 고민은 대동소이해요. 가장 많은 고민은 어린이가 자리에 앉기는 했는데 글을 못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옆에 앉아서 채근하거나 정 안 되면 불러 주시게 되는 일이 많이 있어요. 그 과정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지요. 결국 아이와 전쟁이 벌어지는 경우가 허다해요.

전쟁이 벌어지는 이유는 사실 간단합니다. 글을 쓰기 전에 먼저 어떤 내용을 쓸지, 그 내용을 어떻게 쓸지 이야기를 나누어야 하는데 이 과정 없이 바로 연필과 종이를 주기 때문이에요.

글은 머릿속 뭉뚱그려진 생각을 정확한 단어를 사용하여, 읽기 쉬운 문장으로, 전체 흐름을 고려해 써야 하는, 그야말로 총체적인 능력이 필요한 고난도의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쓰기가 읽기보다 약 5배 정도는 힘든 일이라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머릿속 뭉뚱그려진 그 무엇을 **종이 위에 글자로 표현하기 전 꼭 필요한 '말하기'를 먼저 도와주세요.** 일기, 독후감, 주장글... 어떤 것이든 일단 말로 표현해야 합니다. 말을 하는 과정에서 생각이 인지되고, 그 생각이 정리됩니다. 게다가 말로 글 구성도 대강 해야 합니다.



아래 대화를 보시겠어요?



- 어른** 아까 속상해 보였는데 왜 그랬어?
- 어린이** 수정이한테 내가 아이스크림을 사 줬는데, 다른 친구한테 줬어요.
- 어른** 어머, 너무 속상했겠다. 사 준 네 마음을 몰라 줬구나.
- 어린이** 그러니까요. 진짜 섭섭했어요.
- 어른** 그래서 그냥 헤어졌어? 그 이야기는 더 안 했고?
- 어린이** 섭섭해서 그냥 헤어졌다가 학원에서 다시 만났어요. 수정이가 배 아파서 그랬다고 해서 마음이 좀 풀어졌어요.
- 어른** 아, 배가 아팠던 거구나. 수정이도 이해가 되네.
- 어린이** 네, 생각해 보니까 물어보지도 않고 사 준 저도 실수한 것 같아요.
- 어른** 기특하다, 그런 생각도 하고.

이 정도는 평소에도 무리 없이 하는 대화입니다. 만약 일기를 써야 한다면 이러한 대화를 더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때 생각이 발산되고, 머릿속에 정리까지 되어 글쓰기의 준비가 됩니다.

보통 어린이들이 ‘뭘 써요?’라고 묻는 이유는 소재가 없는 것이 아니라 ‘발견’하지 못하는 것인데, 이런 대화 속에서 소재를 발견하기도 합니다. 본래 글쓰기 소재를 발견하는 일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사람과 주변, 삶에 대한 민감성과 관찰력이 있어야 하거든요.

다음으로는 대화를 이렇게 정돈해 주세요.



어른 먼저, 수정이한테 아이스크림을 사 주고 싶었던 마음과 상황을 써 볼까? 그다음에 수정이가 다른 친구에게 준 상황을 설명해 봐. 학원에서 다시 만나서 오해를 풀었던 이야기는 마지막에 써 볼까?

이 과정은 ‘구성’을 도와주는 건데요, 초반에는 어린이가 한 말의 내용을 바탕으로 이렇게 구성까지 도와주셔야 잘 쓸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을 쓸 수 있어요.

일기 예시

무인 가게 앞에서 수정이를 만났다. 너무 더워서 아이스크림을 사려던 참이어서 수정이 것도 같이 사서 건네주었다. 평소 수정이가 좋아하는 것으로 골랐다. 그런데 수정이가 가다가 그 아이스크림을 다른 친구에게 줬다. 조금 화가 나고 마음이 속상했다.

학원에서 다시 만났는데 수정이가 아까 배가 아파서 그랬다고 했다. 생각해 보니 나도 물어보지도 않고 사 준 것이어서 괜히 미안해졌다.

어때요? 금방 글이 되었지요? 이 과정은 어린이와 글쓰기를 전문적으로 하는 독서 수업에서도 항상 하는 일이에요. 간단한 일기를 예로 들었지만 모든 글쓰기를 이렇게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어린이의 생각이 발전하고 정리되며 글쓰기도 쑥쑥 성장합니다. **연필과 종이 아닌 ‘대화’부터 시작해 주세요.**

2 글쓰기 성장 3단계



1단계 | 효능감 느끼기

글쓰기를 처음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효능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글을 잘 쓸 수 있다는 느낌을 받는 것이지요.** 그러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어떤 주제이든 글을 마구 써 보는 거예요. 글쓰기 분량이나 글쓰기 갈래를 따지지 말고 무작정 써 보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어린이에게 아무런 배경지식이나 글쓰기 지식이 없어도 쓸 수 있는 생활 주제와 자유로운 주제가 필요해요. 예컨대 다음과 같은 주제들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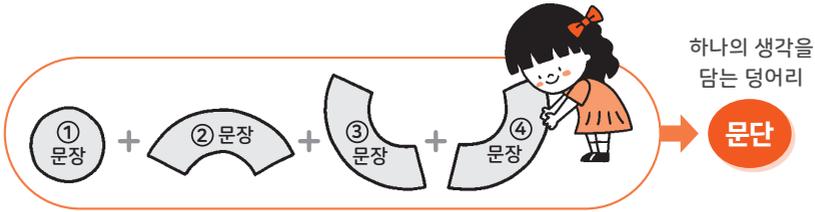
-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인가요?
- 오늘 우리 반 친구들이 했던 말을 3가지 이상 쓰세요.
- 만약 내가 거인이 된다면 무엇을 할까요?
- 만약 내가 투명 인간이 된다면 가장 먼저 할 일은 무엇인가요?
- 라면을 맛있게 먹는 나만의 방법은 무엇인가요?
- 다이소에 가면 사고 싶은 것 3가지를 쓰세요.



어떤 주제는 할 말이 없어서 한두 문장으로 끝날 수 있지만, 어떤 주제는 자신도 모르게 글에서 글이 나오는 경험을 하며 길게 쓰게 되기도 해요. 이러한 경험을 통해 어린이는 쓸 말이 있으면 글도 술술 나온다는 걸 알게 됩니다. 바로 이 경험으로 글쓰기 효능감이 키워져요.

* 글쓰기 효능감을 경험해 볼 수 있는 도서로 《똑딱! 메모 글쓰기》(오현선 | 서사원주니어), 《초등 글쓰기 질문 365》(앤 루니 | 파스텔하우스)를 추천합니다.

2단계 | 문단 개념 배우기



술술 쓰는 경험을 해 본 후에는 문단의 개념을 가르쳐 주면 좋습니다. 문단은 하나의 생각을 담는 덩어리입니다. **글을 잘 쓰는 사람은 이 문단 개념을 인식하고 글을 씁니다.** 자신이 하고자 하는 말을 잘 정돈하고, 비슷한 생각의 문장끼리 묶어 문단을 만들지요. 그리고 이것을 바탕으로 글을 이끌어가요. 이때부터는 글을 쓰기 전 어린이에게 약간의 가이드를 제시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네가 좋아하는 떡볶이에 대해 써 보자.

- 첫 번째 덩어리에는 떡볶이를 좋아하는 이유를 써.
- 두 번째 덩어리에는 떡볶이의 맛과 냄새, 재료 등에 대해 써.
- 세 번째 덩어리에는 앞으로 먹고 싶은 떡볶이에 대해 써.



대략 이렇게 덩어리 지어(문단을 나누어) 글을 끌어 나가는 방법을 알려 주시면 됩니다. 주의할 점은 이 내용의 순서를 어린이가 바꾸어도 된다는 점, 반드시 위 내용이 아니라 다른 것을 써도 된다는 점을 말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딱딱하고 형식적인 글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각 덩어리(한 문단)를 쓰기 전에는 첫 칸을 비운다는 규칙, 다음 덩어리(다음 문단)를 들어갈 때는 줄을 바꾸고 역시 첫 칸을 비운다는 규칙 두 가지를 알려 주세요. 그럼 여러 번 글쓰기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점차 몸에 익게 됩니다.



3단계 | 조직력 키우기

다음으로는 조직력을 키워야 합니다. 어른이 제시해 준 대강의 문단 개념을 이해하고 써 보았다면 이제는 **스스로 문단의 수를 정하고 각 문단에 어떤 내용을 담을지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능력이 바로 글쓰기의 핵심입니다. 자율적 글쓰기가 가능한 단계지요.

이때는 ‘글 대화’를 많이 해 주어야 합니다. 글 대화란 글을 쓰기 전에 내용을 만들고 그걸 조직하는 과정을 대화로 도와주시는 것을 뜻해요. 예컨대 ‘속상한 날’이라는 주제로 글을 쓴다면 일단 어떤 내용을 쓸지 질문을 통해 이야기를 나누어 주시는 거예요.

주제: 속상한 날

- 무엇 때문에 속상했는지
- 그 상황에서 주고받은 말이 있다면 무엇인지
- 그 마음을 어떻게 풀었는지
- 그 일이 또 생긴다면 어떻게 할지



이러한 질문을 통해 이야기를 한껏 풀어내게 하고, 어린이가 한 말들을 어떻게 덩어리 지어서 끌어 나갈지도 질문합니다. 앞서 어른의 도움으로 문단 쓰기를 경험한 어린이라면 개념을 알기 때문에 스스로 어떻게 글을 끌어갈지 생각하게 되고 이때 바로 조직력이 생깁니다.

지금 말씀드린 **3단계의 과정은 처음 문장을 쓸 줄 알게 된 시기부터 초등 6학년까지 계속해야 하는 일입니다.** 이 과정 없어 주제만 주거나 혹은 주제조차 주지 않고 글을 쓰라고 하는 것은 어린이에게 너무 막막한 일입니다. 앞의 과정을 천천히 함께 도와주세요.



3 글쓰기 첫 습관을 잘 들이는 4가지

습관이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한 번 잘못 자리 잡으면 나중에 고치기가 쉽지 않거든요. 저학년 때 습관이 되지 않아 고학년 글쓰기에서도 계속 발목이 잡히는 경우를 많이 보다 보니, 이 세 가지는 꼭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 마침표 꼭 찍기

글쓰기는 단어에서 시작해 문장으로 나아가고, 문단을 구성해 한 편의 글로 완성하는 일이에요. 단어가 시작이긴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한 문장이 최소의 글쓰기입니다.

이 문장 개념을 모르면 고학년이 되어서도 글쓰기가 나아지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어린이에게 한 문단은 최소 3문장~8문장이라고 알려 주는데요, 문장 개념을 모른다면 이런 기본적인 설명조차 이해하기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어린이에게 문장은 ‘생각이나 감정을 말과 글로 표현할 때 완결된 내용을 나타내는 최소의 단위’라고 외우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몸에 익도록 **문장을 구분하는 형식적 약속인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는 것을 알려 주세요.** 마침표(.), 물음표(?), 느낌표(!)가 한 문장이 끝날 때 쓰는 부호라는 것을 계속 익히면 됩니다.





둘째 | 첫 칸 비우기

고학년이 되어 글이 발전하지 못하는 어린이는 대부분 문단 쓰기 개념이 없습니다. 집에서 글쓰기를 잘 지도해서 자유롭게 쓰기까지는 되는데, 그 이상 발전시키지 못하는 경우도 이 때문이에요. 아무래도 가정에서 문단까지 지도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문단 역시 ‘완결된 생각을 담은 문장들이 모여서 하나의 중심 생각을 나타내는 덩어리’라는 개념은 어른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어린이에게는 첫 칸 비우기를 왜 하는지 알려 주신 후, 글을 처음 쓰기 시작하면 무조건 첫 칸을 비워야 한다고 알려 주세요. 두 문단 이상의 글을 쓸 때도 매 문단의 첫 칸은 비워야 한다고 말해 주시고요.



셋째 | 완결된 문장으로 쓰기

글쓰기의 가장 작은 단위가 문장이라고 말씀드렸지요. 글에서 문장은 완결된 형태로 써야 합니다. ‘밥을 먹었음’이 아니라 ‘밥을 먹었다’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종종 이렇게 요약하듯 쓰는 어린이가 있습니다.

공부 노트, 숙제 노트 같은 데 적는 메모가 아닌 ‘글쓰기’를 할 때는 반드시 ‘~다’ 등으로 끝을 맺는 문장으로 써야 함을 알려 주세요. 또 글 안에는 되도록 숫자가 나오지 않아야 하는데요, 숫자를 써서 순서나 방법을 설명해야 한다면 ‘첫째, 둘째’ 등 한글로 쓰도록 지도해 주세요.



넷째 | 바른 글씨 쓰기

개인적으로 요즘 가장 염려하는 부분이에요. 글을 썼는데 글씨를 알아볼 수 없다면 그 내용이 아무리 훌륭하더라도 글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손으로 글씨를 쓰는 것은 두뇌 발달과도 연결되어 있어 디지털 시대로 나아간다고 해도 반드시 해야 하는 일입니다. 더구나 어린이는 물론 중고등학생들도 손으로 쓴 글을 평가받는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알아볼 수 없는 글씨를 쓰는 친구들을 자주 만나요. 처음 한글을 배울 때부터 손힘을 키우고 정자로 바르게 쓰기를 하지 못하면 글을 쓰는 어린이 입장에서도 글을 대하거나 발전시키기가 영 어렵습니다. 글쓰기는 자신이 쓴 부분을 다시 읽으면서 그다음 내용을 이어가야 하는데 자신이 쓴 글을 못 읽으니 그냥 대충 쓰고 말게 되지요.

* 글씨를 나중에 교정하지 않게 처음부터 바르게 쓸 수 있도록 《하루 10분 바른 글씨 마음 글씨》(오현선 | 파스텔하우스)를 펴냈습니다.

이 네 가지만 저학년 때 습관을 잘 들이도록 해 주세요. 그러면 고학년 때 더 깊이 있게 들어가는 글쓰기가 가능해집니다.



4

일기 쓰기, 매일 즐겁게 하는 법

일기는 그날 했던 일과 느낌을 합해서 쓰는 글이 아닙니다. 반성하기 위한 글도 아닙니다. 어린이들에게 일기를 왜 쓰는지 물어보면 한결같이 비슷한 답을 해요. ‘나중에 기억하려고’, ‘반성하려고’라고요. 어른들이 잘 배우지 못해 제대로 알려 주지 못하다 보니 잘못 알고 쓰는 어린이들이 많아 마음이 아립니다. 그래서 안내해 봅니다.

일기는 자기 마음과 생각을 발견하여 자기를 긍정하기 위해 쓰는 거예요.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자기를 객관화해 보는 성찰의 영역이니까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어린이의 첫 글쓰기로 일기는 권하지 않습니다만, 아직 학교에서 숙제로 내 주는 곳도 있고, 또 잘 쓴다면 의미 있는 글쓰기가 될 수 있어 안내해 드리려고 해요.

우선 2페이지의 ‘쓰기 전에 말하기부터 해요’에서 말씀드린 것을 기초로 삼으시면 좋겠어요. 어린이의 생활과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대화를 통해 글 소재 찾기와 구성은 어느 정도 해결됩니다. 다음으로는 이런 방법으로 써 보세요.





사진 일기

어린이의 일상을 자주 카메라에 담으시지요? 그 사진을 함께 꼭 보세요. 그중 마음에 드는 것을 골라, 보면서 글을 쓰면 그 상황이 생생히 생각나서 금방 쓸 수 있습니다.

사진은 그 상황에서의 기분이나 마음도 상기하게 하는 효과가 있어요. 같은 상황을 여러 컷 찍어 보여 주면 더 좋습니다. 물론 이때도 대화를 나눈 후에 쓰면 정리가 더 잘 될 거예요.



음식 일기

맛있게 먹은 음식, 혹은 맛없게 먹은 음식에 대해 쓰는 일기입니다. 음식의 모양, 맛, 색깔 및 어디에서 먹었는지 누구와 먹었는지, 왜 맛있었는지 혹은 반대로 왜 맛이 없었는지를 쓰면 자연스러운 음식 일기가 됩니다. 두 가지를 다 써도 좋습니다. '오늘 먹은 최고의 음식과 최악의 음식'이라는 주제가 되겠지요.



주장 일기

주장하는 글은 고학년 때 배웁니다만, 생활 속 주제를 담은 저학년의 일기에도 충분히 쓸 수 있습니다. 참신하게 쓸 수 있어서 오히려 더 재미있는 일기가 되기도 하지요.

‘수업 시간에 떠들지 말자’, ‘밥 먹을 때 꼭 고기가 있으면 좋겠어요’, ‘아빠, 일찍 들어와 주세요’ 등 생활 속에서 주제를 찾으면 됩니다. ‘주장하는 것, 주장하는 이유, 그 주장이 이루어진다면 어떨지’ 이 세 가지만 쓰게 해도 아주 좋은 일기가 됩니다.



학습 일기

학습 일기는 일기이면서도 배운 것을 정리할 수 있어 좋아요. 어디에서 무엇을 배웠는지, 재미있었던 내용은 무엇인지, 잘 알게 된 점이나 어려웠던 점, 앞으로 그 공부를 할 때 바라는 점과 기대 등을 쓰면 멋진 학습 일기가 됩니다.

저학년이면 ‘배운 내용’을 쓰는 것은 어려울 수 있으니 간단히 쓰고, 고학년은 그 부분을 자세히 쓰게 하면 학습한 내용을 상기시키는 효과도 있습니다.



감정 일기

감정 일기는 말 그대로 ‘한 일’보다 ‘감정’에 집중하는 일기입니다. 본래 “오늘 뭐 했어?”가 아니라 “오늘 마음이 어땠어?”를 물어보아야 마음을 풀어낼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가 나옵니다. 이렇게 쓰면 한 일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중심이 되어 진짜 일기가 되지요!

감정은 상반되는 느낌의 두 가지를 쓰게 하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발표를 할 때 느꼈던 감정인 ‘설레었다’와 ‘긴장되었다’를 같이 담게 하는 거예요. 단일적이지 않은 사람의 감정을 더 섬세히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일기 갈래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제목은 마지막에 쓰는 것이 좋습니다.** 글쓰기에서는 제목 정하기가 가장 어려워요. 글의 내용을 총체적으로 아울러야 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다 쓴 다음 글에 어울리게 짓는 것이 좋고, 처음에는 어른이 지어 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다음으로, **일기는 잠들기 직전이나 피곤한 시간에는 쓰지 않았으면 합니다.** 낮에 시간이 있다면 차라리 낮이 좋습니다. 잠자기 전에는 쉬고 싶은 마음이 들어 대강 쓸 가능성이 크거든요. 이렇게 도와주신다면 일기 쓰기도 좀 수월해질 거라 생각합니다.

5 독후감 쓰기 전쟁, 끝내 볼까요?



독후감은 정말 전쟁인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주 몇 회 숙제로 내 주는지에 따라 가정마다 전쟁 주기도 각각 다릅니다. 독후감은 책을 읽고 써야 하는 거라서 일기 쓰기보다 더 큰 전쟁이 되기도 해요. 일단 ‘읽어야’ 쓰기 때문이지요.

우선 독후감은 ‘줄거리와 느낌’의 조합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렇게 쓰다가는 날이 새도 못 씁니다. 저학년은 발달 단계상 줄거리를 요약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며, 고학년도 줄거리 요약은 여러 번 반복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혼자 독후감을 쓸 때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또한 줄거리는 독후감의 필수 요소가 아닙니다. **독후감은 책 내용을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책을 통해 변화된 ‘나의 생각’에 집중하는 글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책 속에서 필요한 장면만 활용해 쓰면 될 뿐입니다. 아래 구성을 참고하면 어렵지 않게 쓸 수 있습니다.

인물의 행동을 비판하는 독후감

책 속 인물 중 비판하고 싶은 인물이 있다면 찾아봅니다. 모든 이야기책에는 다양한 인물이 등장하기 때문에 보통 비판할 인물이 한두 명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 인물을 찾아 그 인물의 행동 중 비판할 내용을 정리한 후, 자신의 의견을 덧붙이면 됩니다.

경험과 연결 짓는 독후감

책을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자신의 생활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서 있을 법한 이야기가 책 속에도 있기 때문이지요. 책을 읽고 떠오르는 자신의 경험을 쓰게 해 주세요. 다음으로는 그 경험이 떠오른 이유와 책 내용을 연결 지어 하고 싶은 말을 씁니다.

주제를 다르게 생각해 보는 독후감

작가는 주제를 담아 이야기를 씁니다. 그런데 책을 읽는 사람이 그 주제에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바로 비판적 시각으로 읽는 거예요. 먼저 책 속 이야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주제가 무엇인지 써 봅니다. 그리고 내가 그 주제에 동의하지 않는 이유를 쓰고요, 어린이 생각대로 주제가 바뀌었을 때 책 속 이야기가 어떻게 달라질지까지 쓰면 아주 좋은 독후감이 됩니다.

독후감 쓰기에서도 주의할 점이 있어요. 우선 **어린이가 감흥을 느낀 책을 골라야 합니다.** 아무런 감흥이 없는데 독후감을 쓰기는 어렵거든요. 별 느낌이 없었던 책을 들고 끙끙대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다음으로는 **평소 읽는 책보다 좀 쉬운 이야기책을 읽고 써야 합니다.** 어린이의 독서력과 딱 맞는 책은 그 내용을 쓰기가 쉽지 않거든요.

마지막으로, 독후감 쓰기를 정말 어려워하는 어린이라면 차라리 아주 짧은 이야기나 단편 등을 읽고 쓰게 해 주세요. 쓰기 때문에 읽기까지 싫어지면 안 되기 때문이지요.



6 어린이글 속의 어린이와 소통하는 법

저는 어린이에게 ‘훈련’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을 그리 좋아하지 않습니다. 읽고 쓰는 일을 평생 삶의 귀한 일로 여겨 오며, 관련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저 역시 읽기나 쓰기를 훈련으로 한 적은 없었습니다. 좋아서 하다 보니 그저 자연스럽게 읽기력과 쓰기력이 좋아지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어린이의 읽기와 쓰기에 자주 훈련이라는 단어를 쓰는 이유는 그 일로 인해 얻게 될 ‘결과’만을 너무 중시하며 ‘해야 하는 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랬듯 어린이의 읽기와 쓰기도 우선은 즐거워야 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어른들이 어린이의 쓰기를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 글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잘해야 한다’라는 관점으로 보는 경우, 글을 보고 바로 평가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린이가 안 그래도 힘든 글쓰기를 더 힘들게 느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안내합니다.

글에 담긴 마음과 생각을 봅니다

글은 궁극적으로 소통 수단입니다. 마음, 생각, 의견을 말이 아닌 활자로 나누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린이글 뿐 아니라 어떤 글이든 소통이 우선입니다. 어린이글을 읽고 나면 쓴 내용에 대해 자연스럽게 대화를 해 주세요.

- 아, 이런 일이 있었어? 속상했겠다.
- 그래서 그때 민진이가 그런 말을 했던 거구나.
- 학교에서 힘들지 않았어? 글 보니까 힘들었을 것 같아.

이런 자연스러운 반응을 경험한 어린이는 ‘글은 검사받거나 칭찬받기 위해 억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마음과 생각과 의견을 주고받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질문을 해 주면 더 좋습니다

- 민진이가 어떤 이야기를 해 준 거였어?
- 수정이 집에서 논 줄 알았는데 민지 집에서 놀았어?

이렇게 글을 읽고 생긴 궁금증을 자연스럽게 질문해 주면 어린이들은 어른이 자기 글을 읽었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고 더 자세히 쓰게 됩니다. 실제로 저도 어린이글을 읽고 나서 궁금한 것이 있어 질문을 하면, 어린이가 답을 하다가 스스로 자기 글을 더 수정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혹시 여러분이 블로그 등 SNS에 글을 썼는데, 지나가는 이가 맞춤법 지적만 하고 간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가슴이 콕 막히는 기분일 거예요. 이를 생각한다면 왜 소통이 먼저인지 이해가 잘 되시겠지요?





맞춤법은 어린이글에서 가장 나중에 볼 부분입니다. 어린이글에 소통해 주신 다음에는, 전체적으로 하고자 하는 말이 잘 담겼는지를 봐 주세요. 어느 정도 잘 담겨서 완성도가 높은 글이 되었다면 마지막으로 맞춤법을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맞춤법을 교정하는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말 모르는지부터 확인해요

글을 쓸 때는 글 구성과 내용에 인지 자원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맞춤법에 신경을 쓰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는 것도 틀릴 때가 있어요. 따라서 정말 모르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우선인데요, 어린이가 자신의 글에서 틀린 맞춤법을 스스로 찾아보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스로 인지하고 찾아낸다면 모르는 것이 아니니 넘어갑니다. 만약 못 찾는다면 모르는 것이니 그런 단어 중심으로 교정하면 됩니다.

틀린 단어를 정확한 발음으로 읽도록 가르쳐 주세요

틀린 단어를 정확한 발음으로 읽도록 지도해 주셔야 해요. 쓰기는 늘 읽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귀엽다’를 ‘기엽다’로 읽는다면, 자음과 모음 하나하나씩 떼어서 먼저 읽고 조합된 단어도 정확히 읽도록 해 주세요.

문맥 안에서 따라 쓰게 해요

이제 틀린 글자를 따라 써 봅니다. 이때 ‘귀엽다’라고 단어만 무의미하게 반복해서 쓰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따라 쓸 가능

성이 크기 때문이에요. ‘귀엽다’라는 단어가 들어간 문장을 보고 쓰게 해주 시되, 쓸 때는 해당 단어만 써도 됩니다.

교정되었는지 확인해요

1~2주 후쯤 연습했던 단어들을 받아쓰기 해 봅니다. 이때 맞게 쓰면 교정이 된 것이고, 또 틀리면 교정이 안 된 것이니 위 내용을 반복해야 합니다.

시중 교재를 활용해요

‘설것이/설거지’, ‘돼/되’처럼 일반적으로 많이 틀리는 맞춤법을 틀리는 어린이는 시중 교재를 활용하면 좋습니다. 이런 단어들을 선별해서 교정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으니까요.

맞춤법 교정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처음 한글을 배울 때 자모음 글자 인식을 정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그 시기가 지났다면 위의 방식처럼 교정을 해야 합니다.

주의하실 점도 말씀드려요. 어린이글을 보고 틀린 글자를 옆에 ‘바르게’ 써 주는 것은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건 어른의 눈에 보이는 것을 수정한 것일 뿐, 어린이가 눈으로 본다고 바로 쓸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글쓰기에서 맞춤법은 가장 마지막에 보는 것으로 이미 말씀드렸지요? 우선 **글에 담긴 어린이 마음, 생각, 의견에 소통부터 해 주시고, 맞춤법은 1~2주 전에 이미 써 둔 글을 보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글을 쓰자마자 바로 맞춤법 교정이 들어가면, 글쓰기 상처가 생겨서 쓰기도 싫어지고 교정도 잘 되지 않습니다.

어린이와 함께 글을 쓰고 소통하는 시간은 참 행복합니다. 저는 이 일을 오랫동안 하면서 생각지도 못한 어린이의 생각, 차마 보듬어 보기조차 조심스러운 마음을 많이 만났어요. 어린이글을 읽는다는 것이 참으로 축복된 일이라는 것을 매일 절감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마음도 있습니다. 그건 바로 글쓰기 성장이 멈춘 듯한 경우를 볼 때예요. 저학년 때는 형식에 치중하거나 얽매이는 글이 아닌 날것 그대로의 글을 쓰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때 글은 오히려 완벽하지 않아 반짝 반짝 빛이 납니다.

그러다 고학년으로 가면 형식을 갖춘 글쓰기도 하고, 주제도 확장해 가면서 조금씩 글의 수준을 높여 가지요. 또 학교에서 요구하는 숙제 글쓰기까지 다양한 글쓰기를 경험하며 계속 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어느 순간 글이 좀처럼 발전하지 않는 어린이들이 있어요. **그 어린이들의 공통점은 바로 독서가 아예 부재하거나 빈곤한 독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독서의 빈곤은 곧 생각의 빈곤입니다. 독서는 끊임없이 사람을 성장시키기 때문에 깊이 있는 독서를 하는 어린이는 처음에는 글이 서툴더라도 어느새 자신의 깊이 있는 생각을 종이에 꼭꼭 담아 써내는 것을 보곤 합니다. 반대로 글쓰기를 지속적으로 해 왔음에도 웬지 비슷비슷한 글에 머무는 어린이도 있습니다.

단순하게 예를 들자면 ‘엄마의 사랑’을 주제로 글을 쓰는 경우, 독서를 하는 어린이와 그렇지 않은 어린이가 담는 생각의 깊이와 표현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그 누구도 지도해 줄 수 없는 부분이에요. 스스로 독서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독서가 쓰기와 연결되는 지점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저학년 때는 주로 자기 삶에서 길어 낸 소재와 주제로 글을 쓰기 때문에 생활 배경지식만 있으면 글쓰기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고학년 이후, 특히 중학교 이상 학교에서 요구하는 **수행 평가 글 쓰기 등은 보통은 다양한 자료를 찾아 읽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써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글쓰기에 필요한 것이 바로 **읽기 능력**이에요. 이 읽기 능력도 독서로 길러집니다. 읽지 않고 쓰면 허공에 울리는 메아리처럼 알맹이가 없는 글을 쓰게 되어 있어요. 어떤 책이든 좋습니다. 무엇이든 즐기며 읽게 도와주세요.

읽고, 사유하고, 쓰는 사람이 보는 세상은 분명 다릅니다. 세상을 보는 시선도 깊어지지만, 무엇보다 자신의 마음에 귀를 기울이고 보듬어 볼 줄 아는 사람이 됩니다. 어린이가 자기 삶을, 마음을, 생각을, 글로 노래할 수 있도록 곁에서 함께 해 주세요.





술술 글쓰기 마법책 시리즈 (전 3권)

오현선(라온쌤) 지음

대학원에서 독서 논술을 전공하고, 독서교육 전문가로 24년째 활동하고 있습니다.

독서 교실을 운영하며 어린이들과 매일 읽고 쓰고요,

도서관과 학교에서 양육자님들을 만나며 독서교육의 참 가치를 전달해 드립니다.

네이버 카페 '라온북다움'을 통해 전국의 어린이들과 읽기, 쓰기도 함께하고 있어요.

지은 책으로 《초등 미니 논술 일력 365》, 《하루 10분 초등 신문》, 《초등 1학년 기적의 첫 독서법》, 《똑딱! 미니 논술》, 《초등 완성 생각정리 독서법》, 《초등 짧은 글+긴 글 3단계 완주 독후감 쓰기》, 《하루 10분 바른 글씨 마음 글씨》, 《우리 아이 진짜 독서》, 《우리 아이 진짜 글쓰기》 등이 있습니다.

유튜브 라온쌤의 독서교육 TV | 라온쌤 글쓰기

블로그 blog.naver.com/few24 (오쌤의 독서교육 이야기)

인스타그램 @raon_book_teacher

네이버카페 라온북다움 cafe.naver.com/laonbookdaoom

유민하(루잇) 그림

대학에서 시각디자인을 전공하고, 지금은 어린이책에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어린이들과 동물들의 모습을 담은 따스하고 귀여운 그림을 그리면서 행복을 느낍니다.

그린 책으로 《스토리버스》 시리즈가 있습니다.

인스타그램 @ruiit_



양육자들의 고민은 어린이가 자리에 앉기는 했는데 글을 못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채근하거나 안 되면 불러 주게 되고, 결국 아이와 전쟁이 나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글을 쓰기 전에 어떤 내용을 쓸지, 어떻게 쓸지 이야기를 나누어야 하는데 이 과정 없이 연필과 종이를 주기 때문이에요.

머릿속 뭉뚱그려진 그 무엇을 종이 위에 글자로 표현하기 전 꼭 필요한 ‘말하기’를 도와주세요. 어린이가 자기 삶을, 마음을, 생각을, 글로 노래할 수 있도록 곁에서 ‘글 대화’를 해 주세요.

- 오현선

술술 글쓰기 마법책 시리즈 (전 3권)



1 시작책

예비 초등부터 2학년까지
문장을 처음 쓰기 시작할 때



2 발전책

2학년부터 5학년까지
조금 더 긴 글을 쓰기 시작할 때



3 완성책

3학년부터 6학년까지
학교 글쓰기에 대비해야 할 때